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만족도 평가 분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중심으로- Empirical Settlement Environment Satisfaction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in Innocity

백민, 안형순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Min Baek(baek5851@gmail.com), Hyung-Soon An(hsan99@dsu.ac.kr)

요약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이 혁신도시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특성(6개 문항), 사회적 특성(3개 문항), 시설적 특성(5개 문항), 경제적 특성(3개 문항), 전반적인 만족도(3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정주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특성(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특성(이웃과의 관계), 시설적 특성(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거주자의 인식에 기반하였다는 것과 설문조사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

■ 중심어 : | 혁신도시 | 이전 공공기관 | 정주환경 | 로지스틱 회귀분석 | 만족도 |

Abstract

In regard to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Innocity from improvements in Innocity settlement environment, this research examines the level of satisfaction of Innocity settlement environment to propose a political implications. We deduced the main cause of settlement environment satisfaction by performing logistic regression on the public institution employees level of satisfaction in respect to 4 Innocity characteristics—six physical properties, three social properties, five facility properties, three economical properties—and three general questions.

As a result, the greatest factor of settlement environment was physical properties, such as natural environment and scenery, residential environment, availability of diverse uses in the surrounding area, and access to public transportation. In addition, social characteristics (relationships with neighbors), and facilities (availability of industrial, research and educational facilities) were also significant. This research provided poli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Innocity settlement environment improvements despite limiting factors such as residents' perception and limited surveyed sites.

■ keyword : | Innocity | Public Institution | Settlement Environment | Logistic Regression | Satisfaction |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단기간의 압축성장으로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하였다. 이후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10개 혁신도시에 113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계획하였다. 최근까지 110개 기관이 이전 완료함으로써 이전률이 97.3%까지 도달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혁신도시는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당초 계획하였던 기업이전이 미비¹하거나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는 전체의 47% 정도²만이 차지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문제인 정부는 혁신도시 2.0 계획을 통해 기존 개발된 혁신도시나 인근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고 기업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가족단위 이주를 확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된 혁신도시에 대해 세심한 평가를 통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대부분 타 지역에서 불가피하게 혁신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이주형태가 나홀로 이주 또는 일부 가족을 동반한 가족단위 이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 자발적 이주자들이 현재의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평가와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로의 이주 이후 느끼는 정주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조성된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도시 규모나 계획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이후 빛가람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2018년 9월 기준 30,41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5개 이전 공공기관에 6,936명의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또한 용지분양률은 산학연클러스터 용지, 근린공공시설 용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완료됨으로써 96.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2].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거주자들의 정주환경 만족도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조사시기는 2018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 거주민의 정주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을 도출한다. 그리고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속성을 다시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한다. 또한 정주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처음 이사왔을때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주환경 개선 여부,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정주환경 만족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정주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등 3개 항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속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정주환경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2018.8.27.)에서 논의된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10개 혁신도시내 639개 기업이 이전하였지만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177개에 불과하며, 86%에 해당하는 기업이 30인 이하 기업으로서 매우 영세한 수준이다.

2 프레시안(2018.10.25.) 기사에 의하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 이전 112개 기관 임직원 중 47%만이 가족동반 이주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I. 선행연구 검토

1. 혁신도시 도입과 전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³은 수도로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인구와 각종 기능을 분산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여 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우리나라도 수도권 인구의 과잉과 산업을 분산하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이전시키거나 한국수자원공사를 이전하였고, 1990년대 정부대전청사에 12개의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충청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그리고 지방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혁신도시를 개발하였다. 특히 새로 개발된 혁신도시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개발하여 이전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 일자리와 인구가 동시에 이전함으로써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개발하였다.

최근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와 관련된 경제관련장관회의(2018. 8. 27) 자료를 보면,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기관 중 110개 기관이 이전완료(97.3%, 3.8만명)하였고 이로 인해 혁신도시 거주인구는 3배, 지방세수도 약 15배가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¹.

그러나 전술한바와 같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가족동반 이주는 50%에 미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직장문제와 교육시설 등의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³. 특히 정주

환경에 대한 이유로 가족동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불만족은 향후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⁴이 확정됨으로써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지원, 주변 지역과의 상생발전, 정주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발전전략과 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특히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더 많은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혁신도시 관련 연구 동향

김정호(2008)은 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업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질 관점에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⁴.

류형철 외(2012)의 연구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자료를 기반으로 내용분석과 빈도-강도분석을 통해 혁신도시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거주지 조성/조세혜택, 집적성 부족, 교육여건, 교통문제 등이 혁신도시로의 이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⁵.

지역발전위원회(2015)는 10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가족동반 이주 현황과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족단위 이주를 결정한 이유는 가족과의 동거 및 공유시간 확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나홀로 이주를 결정한 이유는 배우자 및 다른 가족의 직장 문제와 자녀교육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주 후 장점은 출퇴근 시간 및 비용 감소, 자연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고, 단점은 의료, 문화복지시설 부족 및 대중교통 불편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주 전과 비교하여 만족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주여건, 교통, 의료, 교육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이주 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³.

³ 한국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공공기관을 수도로부터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토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지진, 재해 등 국가안전을 위하여 분산, 지방이전 등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³.

⁴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김형우(2017)는 혁신도시 105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동반 이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기존 도심과 거리가 가깝거나 이전지역의 인구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전기관의 이전인원비율이 높을수록, 정착기간이 길수록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6].

혁신도시와 관련된 그동안의 연구는 혁신도시의 자족성과 도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동반 이주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혁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졌고 도시개발이 성숙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주환경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향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2.2 정주환경 관련 연구 동향

정주환경은 일반적으로 주거환경, 삶의 질, 사회적 만족도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라채훈(2004)는 정주환경은 시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조건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정주환경은 안전, 건강, 편리, 문화·교육, 쾌적, 경제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7]. 정창호(2015)는 정주환경은 해당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하며, 이러한 환경은 해당 지역의 환경뿐만 아니라 중심도시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환경까지 포함한 지역의 환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주환경 요소를 통행환경, 쇼핑·구매환경, 문화·여가환경, 의료서비스환경, 교육환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8].

기존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정주환경은 물리적인 환경과 함께 비물리적 환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를 포함하는 인간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이라고 정의한다.

정주환경과 관련된 연구는 지역의 각종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정주환경을 분석한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중 설문조사를 통해 정주환경을 인식하는

연구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인 주민의 인식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설문분석 등을 통해 정주환경을 평가한 연구를 중심으로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임미화(2015)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가 정주환경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주환경을 대표하는 변수인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 가구특성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주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생활환경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거지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지표는 경제적 여건임을 알 수 있다[9].

정창호(2015)는 경남도내 5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쇼핑·구매환경, 문화·여가환경, 의료서비스환경, 교육환경 등의 정주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인들은 쇼핑·구매환경, 교육환경, 문화·여가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7].

이재송 등(2018)은 산업단지 종사자의 정주환경을 교통특성, 환경 및 경관특성, 지원시설 특성과 종사자 및 기업특성을 통해 정주여건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지내 도로시설, 단지내 조경 및 경관 처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공원 조성, 행정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등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10].

최효승 등(2018)은 전원마을 거주자들의 정주환경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입지환경, 단지환경, 근린환경, 경제환경을 대표하는 12개 변수의 입주전 중요도와 입주후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IPA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환경 및 경관, 접근성 등이 정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11].

이상의 연구동향을 볼 때, 정주환경은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비물리적 변수인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통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혁신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정주환경 요인을 토대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향후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제안을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III. 분석의 틀 설정

1. 설문개요

본 연구는 빛가람 혁신도시내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고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내 15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진,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8년 7월 23일부터 9월 1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70부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8부를 제외한 262부를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특성과 관련된 6개 문항과 종속 변수에 해당하는 정주환경 만족도와 관련된 3개 문항,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수의 구성은 임미화(2015), 정창호(2015), 이재송 등(2018) 및 최효승(2018)의 연구5를 참조하여 16개 문항을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으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설문문항 구성

		변수 설명	
종속 변수	정주환경 만족도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 만족	
	이사 시점과 비교하여 정주환경 개선 여부	1: 개선되지 않음 2: 개선되었음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정주환경 만족 여부	1: 이전 거주지에 비해 불만족 2: 이전 거주지에 비해 만족	
독립 변수	물리적 특성	자연환경 및 경관	1:매우 불만족 2:약간 불만족 3:보통 4:약간만족 5:매우 만족
		주거환경 (단지규모 및 형태)	
		광역적 접근성	
		도로 및 주차	
	사회적 특성	대중교통	
		소음, 악취 및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시설적 특성	치안 및 방법	
		마트, 시장 등 상업시설	
		공원녹지 등 휴식시설	
		영화관, 복지관 등 여가문화시설	
		종합병원, 한방병원 등 병원의료시설	
		학교,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	
	경제적 특성	주택가격 적정성	
		거주비용 적정성	
		금융 및 세제지원	
응답자 특성	성별	1:남자 2:여자	
	연령	1:20대 2:30대 3:40대 4:50대 5:60대 이상	
	혼인여부	1:미혼 2:기혼	
	학력수준	1:고등학교 졸업 2:대학교 졸업(4년제 미만) 3: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4:대학원 수료 이상	
	월평균 소득	1:300만원 미만 2:300-600만원 미만 3:600-900만원 미만 4:900-1,200만원 미만 5:1,200만원 이상	
	거주기간	1:1년 미만 2:1-2년 미만 3:2-3년 미만 4:3-4년 미만 5:4년 이상	

2. 신뢰성 검증

척도의 신뢰성(reliability)은 한 대상을 유사한 측정 도구로 여러 번 측정하거나 한 가지 측정도구로 반복 측정했을 때, 일관성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정도에 관련된다. 척도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적 일관성, 반복측정 신뢰성, 대안항목 신뢰성 등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내적일관성에 의한 방법이다. 내적 일관성은 항목들간의 상관관계로써 평가되는데, 항목들간의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내적일관성이 높다. 일반

5. 임미화(2015)는 주거환경, 경제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을 정주환경 변수로 설정하였고, 정창호(2015)는 쇼핑·구매환경, 문화·여가환경, 의료서비스환경, 교육환경을 정주환경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재송 등(2018)은 교통특성, 경관 및 환경특성, 지원시설특성을 정주환경 변수로 설정하였고, 최효승 등(2018)은 입지환경, 단지환경, 근린환경, 경제환경을 정주환경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주환경 구성요소를 본 연구에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으로 재 분류하였다.

적으로 내적일관성 평가방법은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다.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지만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0.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의 크기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계수값을 크게 할 수 있다[12].

설문조사를 통해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16개 특성을 중심으로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하고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특성은 제거하여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3. 분석모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응답결과가 다양한 척도에 의하여 명목상으로 분할되어 있는 선택지를 거쳐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종속변수가 명목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변수와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대표적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의 형태가 0, 1과 같이 이항(binary)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이라고 부른다. 이항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대한 식은 다음과 같다.

$$\ln\left(\frac{P}{1-P}\right) = \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위 모형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P_i = \frac{e^{(\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1 + e^{(\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여기서 회귀계수의 부호가 양수이고 값이 커지며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부호가 음수이고 절대값이 커지면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종속변수가 3개 이상인 경우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한다. 그러나 종속변수가 순서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은 단순한 선택확률을 구하는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비해 해석이 용이하고 가설 검정에 있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불만족(1)부터 매우 만족(5)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모형을 사용한다. 순서형 로지스틱회귀분석에 대한 식은 다음

과 같다.

$$\ln\left(\frac{\Pr(y = i|x)}{\Pr(y = D+1|x)}\right) = \alpha + \beta_1x_{1i} + \beta_2x_{2i} + \dots + \beta_px_i + e_i$$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량 분석

1.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성별은 남성(64.5%), 연령층은 30대(46.9%), 그리고 미혼(55.3%)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기혼 응답자 117명 중 가족동반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만이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57%의 응답자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학력수준은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이상의 고학력 응답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평균소득은 6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기간은 1년 미만(27.5%), 3년 이상 4년 미만(23.7%), 1년 이상 2년 미만(23.3%)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2].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도수(명)	비율(%)
전 체		262	100.0
성별	남성	169	64.5
	여성	93	35.5
연령	30세 이하	75	28.6
	31-40세 이하	123	46.9
	41-50세 이하	53	20.2
	51-60세 이하	11	4.2
결혼유무	미혼	145	55.3
	기혼	117	44.7
	홀로 거주	50	43.0
	부부만 거주	22	18.5
	부부+일부 가구원 거주	9	7.3
	모든 가구원 거주	36	31.1
학력수준	고등학교 졸업	6	2.3
	대학교 졸업(4년제 미만)	17	6.5
	대학교 졸업(4년제 이상)	196	74.8
	대학원 수료 이상	43	16.4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	106	40.5
	300-600만원 미만	108	41.2
	600-900만원 미만	36	13.7
	900-1,200만원 미만	4	1.5
	1,200만원 이상	8	3.1
거주기간	1년 미만	72	27.5
	1년 이상 2년 미만	61	23.3
	2년 이상 3년 미만	45	17.2
	3년 이상 4년 미만	62	23.7
	4년 이상	22	8.4

1.2 변수의 기초통계량 분석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하여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분석을 위한 각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족도를 평가하는 종속변수는 전반적인 만족도, 이사 당시와 비교했을 때 개선 여부, 혁신도시로 이사하기 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이다. 먼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값은 2.78로써 대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만족 여부의 평균값은 1.2로써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혁신도시로 처음 이주 당시와 비교하여 정주환경 개선여부에 대한 평균값은 1.80으로써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물리적 특성에 해당하는 변수 중 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단지규모 및 형태), 도로 및 주차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광역적 접근성 및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광역적 접근성 측면과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인근 광주광역시의 접근을 위해 2개 버스노선만 운행중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 이웃과의 관계, 치안 및 방범 변수 중에서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입지하고 있는 나주시 빛가람동은 과거부터 인근에 축산농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써 개발초기부터 축산분뇨에 따른 악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웃과의 관계, 치안 및 방범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시설적 특성에서는 공원녹지 등 휴식시설을 제외하고 상업시설, 여가문화시설, 병원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빛가람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공원녹지의 비율이 전체 개발면적의 2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등이 입지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병원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택가격 적정성, 거주비용 적정성, 금융 및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불만족하고 있다. 경제적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이유는 많은 응답자가 기존 가구원과 분리되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함에 따른 주거비용의 상승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 모두가 이주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31.1%만이 해당[표 2]된다.

표 3. 기초통계량 분석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전반적인 만족도	2.78	.87070	1.00	5.00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만족 여부	1.12	.32807	1.00	2.00	
	이사 시점과 비교하여 개선 여부	1.80	.40248	1.00	2.00	
독립 변수	물리적 특성	자연환경 및 경관	3.42	.86694	1.00	5.00
		주거환경	3.32	.91352	1.00	5.00
		광역적 접근성	2.77	.99935	1.00	5.00
		도로 및 주차	3.23	1.05550	1.00	5.00
		대중교통	2.14	.98854	1.00	5.00
	사회적 특성	소음, 악취 및 대기오염	1.77	1.01105	1.00	5.00
		이웃과의 관계	3.20	.81722	1.00	5.00
		치안 및 방범	3.24	.93129	1.00	5.00
	시설적 특성	상업시설	2.64	.97138	1.00	5.00
		휴식시설	3.67	.98605	1.00	5.00
		여가문화시설	2.84	.96009	1.00	5.00
		병원의료시설	2.01	.95261	1.00	5.00
		교육연구시설	2.52	.93877	1.00	5.00
	경제적 특성	주택가격 적정성	2.44	.97948	1.00	5.00
		거주비용 적정성	2.65	.98591	1.00	5.00
금융 및 세제지원		2.95	1.00048	1.00	5.00	

2. 신뢰도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물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에 대해 16개 속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6개 속성에 대해 내적일관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계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특성별 세부변수에 대한 내적일관성 분석 결과

변수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 알파
물리적 특성	자연환경 및 경관	.714	0.709
	주거환경	.621	
	광역적 접근성	.655	
	도로 및 주차	.635	
	대중교통	.668	
사회적 특성	소음, 악취 및 대기오염	.641	0.462
	이웃과의 관계	.321	
	치안 및 방법	.061	
시설적 특성	상업시설	.722	0.787
	휴식시설	.792	
	여가문화시설	.744	
	병원의료시설	.749	
	교육연구시설	.723	
경제적 특성	주택가격 적정성	.675	0.813
	거주비용 적정성	.667	
	금융 및 세제지원	.870	

내적 일관성 분석 결과, 물리적 특성, 시설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Cronbach's α 계수값이 0.709-0.813 사이에 분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신뢰되는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나, 사회적 특성의 경우 Cronbach's α 계수값이 0.462로써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빗가람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악취로 인하여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이웃과의 관계, 치안 및 방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수간 상관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 악취 및 대기오염 변수를 제거할 경우 Cronbach's α 계수값이 0.641로 나타남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소음, 악취 및 대기오염 변수를 제거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3. 정주환경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3.1 이사 당시와 비교할 때 정주여건 개선 여부

빗가람 혁신도시로 처음 이사왔을 때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주여건 개선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4.131$, 자유도=31, $p<0.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는 Cox & Snell의 R^2 은 0.280, Nagelkerke의 R^2 은 0.440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의 분류정확도는 84.6%를 보이고 있다.

표 5.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분류정확도 (%)
64,131	31	.000	0,280	0,440	84,6

개별 특성의 유의도 검증($p<0.05$) 결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도시가 개발된지 약 5년 정도가 경과함에 따라 이웃간의 교류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8년 9월 현재 상업·업무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00% 분양되었으며, 대부분의 상업용지 개발이 완료되어 상업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또한 유의도 검증($p<0.1$)에서는 자연환경 및 경관, 교육연구시설, 기혼자일수록 정주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6.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S.E.	Wald	유의 확률	Exp(B)
자연환경 및 경관	.648*	.355	3,342	.068	1,912
주거환경	-.294	.389	.570	.450	.746
광역적 접근성	.286	.305	.883	.347	1,331
도로 및 주차	-.026	.295	.008	.929	.974
대중교통	-.216	.325	.444	.505	.805
이웃과의 관계	.900**	.346	6,773	.009	2,460
치안 및 방법	-.454	.340	1,784	.182	.635
상업시설	.747**	.356	4,408	.036	2,112
공원녹지 등 휴식시설	-.031	.313	.010	.922	.970
여가문화시설	-.395	.321	1,515	.218	.674
병원의료시설	-.478	.376	1,615	.204	.620
교육연구시설	.638*	.385	2,745	.098	1,893
주택가격 적정성	.057	.404	.020	.887	1,059
거주비용 적정성	-.008	.395	.000	.983	.992
금융 및 세제지원	.147	.279	.276	.599	1,158
성별(ref.=여성)	.079	.544	.021	.885	1,082
연령(ref.=50대 이상)			4,579	.205	
20대	-20,73	15416,558	.000	.999	.000
30대	-19,26	15416,558	.000	.999	.000
40대	-19,22	15416,558	.000	.999	.000
혼인상태(ref.=기혼)	-1,49	.868	2,984	.084	.223
학력수준(ref.=대학원이상)			.013	1,000	
고등학교 졸업	21,123	18368,483	.000	.999	149,21
전문대학 졸업	.080	1,162	.005	.945	1,083
대학교 졸업	-.028	.751	.001	.970	.973
월평균소득(ref.=1,200만원 이상)			3,290	.511	

300만원 미만	-19,05	15502,141	.000	.999	.000
300-600만원	-19,92	15502,141	.000	.999	.000
600-900만원	-20,73	15502,141	.000	.999	.000
900-1,200만원	-22,07	15502,142	.000	.999	.000
거주기간(ref.=4년 이상)			16,345	.003	
1년 미만	-1,341	1,015	1,746	.186	.262
1-2년	1,669	1,127	2,192	.139	5,305
2-3년	.330	1,056	.098	.754	1,392
3-4년	.335	1,089	.095	.758	1,398

** : p<0,05, * : p<0,1

3.2 이사 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정주여건 만족 여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사하기 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 여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55.726$, 자유도=31, $p<0.05$).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상관관계는 Cox & Snell의 R^2 은 0.249, Nagelkerke의 R^2 은 0.482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의 분류정확도는 91.3%를 보이고 있다.

표 7.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분류정확도 (%)
55,726	31	.004	0,249	0,482	91,3

개별 변인의 유의도 검증($p<0.1$) 결과,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전 거주지와 비교하여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적 접근성 만족도 평균값은 2.77이며 대중교통 만족도 평균값은 2.14로써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에 참여한 이전 공공기관들이 모두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고 있다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한 것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할 당시를 유추해보면 주택가격으로 인해 도시외곽 지역 주택에 거주하거나 매일 교통대란에 시달리던 중사자들이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상대적으로 넓고 직장과 가까운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가한 교통상황 등을 직면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자연환경 및 경관	-.457	.530	.744	.388	.633
주거환경 (단지규모 및 형태)	.992*	.532	3,476	.026	2,696
광역적 접근성	.733*	.426	2,964	.085	2,082
도로 및 주차	.005	.448	.000	.992	1,005
대중교통	.800*	.414	3,727	.054	2,225
이웃과의 관계	.118	.467	.064	.801	1,125
치안 및 방법	.336	.563	.357	.550	1,400
상업시설	-.297	.491	.367	.545	.743
휴식시설	.171	.488	.123	.726	1,187
여가문화시설	.511	.502	1,035	.309	1,667
병원의료시설	.003	.544	.000	.996	1,003
교육연구시설	-.833	.508	2,687	.101	.435
주택가격 적정성	-.393	.535	.540	.462	.675
거주비용 적정성	.682	.560	1,482	.223	1,977
금융 및 세제지원	.292	.392	.557	.456	1,339
성별(ref.=여성)	-.440	.760	.335	.563	.644
연령 (ref.=50대 이상)			3,658	.301	
20대	-2,374	1,946	1,487	.223	.093
30대	-1,106	1,669	.439	.507	.331
40대	-.103	1,589	.004	.948	.902
혼인상태(ref.=기혼)	-.884	1,079	.671	.413	.413
학력수준(ref.=대학원이상)			2,969	.396	
고등학교 졸업	3,438	2,521	1,861	.173	31,140
전문대학 졸업	1,591	1,900	.701	.402	4,907
대학교 졸업	2,231	1,371	2,649	.104	9,309
월평균소득(ref.=1,200만원 이상)			3,455	.485	
300만원 미만	20,243	16161,513	.000	.999	61,571
300-600만원	18,407	16161,513	.000	.999	98,531
600-900만원	17,407	16161,513	.000	.999	36,018
900-1,200만원	1,013	25381,295	.000	1,000	2,753
거주기간(ref.=4년 이상)			1,696	.791	
1년 미만	-.056	1,270	.002	.965	.946
1-2년	.649	1,152	.317	.573	1,914
2-3년	-.006	1,317	.000	.997	.994
3-4년	1,029	1,218	.713	.398	2,798

** : p<0,05, * : p<0,1

3.3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카이제곱 통계량에 대한 유의확률이 0.000이므로 독립변수가 모형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Cox & Snell의 R^2 은 0.516, Nagelkerke의 R^2 은 0.561로써, 모형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유의도 검증과 설명변량

모형	-2 LL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 확률	Cox & Snell의 R-제곱	Nagelkerke의 R-제곱
절편 만	491.600				0.516	0.561
최종	350.666	140.934	31	.000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의도 검증(p<0.05) 결과, 주거 환경에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의도 검증(p<0.1)에서는 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성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전반적인 정주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그러나 설문응답자 중 가구원 전체가 이주한 가구는 31.1%이며, 대부분의 가구는 중·고교 학생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즉,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도 검증

	B 추정값	표준오차	Wald	유의확률
자연환경 및 경관	.083	.217	.146	.702
주거환경 (단지규모 및 형태)	1.166**	.256	20.689	.000
광역적 접근성	.172	.193	.794	.373
도로 및 주차	.221	.185	1.435	.231
대중교통	.292	.199	2.149	.143
이웃과의 관계	.129	.221	.340	.560
치안 및 방법	-.053	.213	.062	.803
상업시설	.388	.220	3.091	.079
휴식시설	.236	.213	1.227	.268
여가문화시설	.129	.215	.363	.547
병원의료시설	.307	.236	1.687	.194
교육연구시설	-.444	.232	3.654	.056
주택가격 적정성	.040	.257	.024	.877
거주비용 적정성	.152	.257	.351	.553
금융 및 세제지원	.268	.195	1.900	.168
[성별=남자]	-.603	.365	2.724	.099
[연령=20대]	-.265	1.094	.059	.808
[연령=30대]	.721	.988	.533	.465
[연령=40대]	1.034	.988	1.097	.295
[연령=50대]	0a	.	.	.

[혼인상태=미혼]	.065	.493	.018	.895
[학력수준=고등학교]	1.016	1.200	.718	.397
[학력수준=전문대학]	1.017	.749	1.844	.174
[학력수준=대학교]	.839	.452	3.450	.063
[월평균소득=300만원 미만]	.289	.993	.085	.771
[월평균소득=300-600만원]	-.047	.965	.002	.961
[월평균소득=600-900만원]	-.217	1.067	.041	.839
[월평균소득=900-1200만원]	.261	1.391	.035	.851
[거주기간=1년 미만]	.356	.651	.299	.585
[거주기간=1-2년]	.599	.610	.963	.326
[거주기간=2-3년]	-.320	.637	.253	.615
[거주기간=3-4년]	-.105	.630	.028	.867

** : p<0.05, * : p<0.1

3.4 정주여건 만족도 결정요인 종합분석

빛가람 혁신도시로 처음 이주했을때와 비교할 때 현재의 정주환경 개선여부 및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 혁신도시의 전반적인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물리적 특성 중에서는 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 등의 변수가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 등과 비교할 때 물리적 특성이 정주환경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특성 중에는 이웃과의 관계가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만족할수록 정주환경 만족도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적 특성에서는 상업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환경에 대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교육연구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을수록 정주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이라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는 설문응답자 중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더 많이 분포하고 가족단위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중학

교 이상 학생들은 함께 이주하지 않은 결과가 반영되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특성은 정주환경 만족도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변수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전 거주지와 비교할 때 저렴한 주택 구입비용이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 부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 유의변수 종합

구 분		이주 당시 비교, 정주여건 개선 여부	이전 거주지와 비교, 만족 여부	전반적인 정주여건 만족도
물리적 특성	자연환경 및 경관	+		
	주거환경		+	+
	광역적 접근성		+	
	대중교통		+	
사회적 특성	이웃과의 관계	+		
시설적 특성	상업시설	+		+
	교육연구시설	+		-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남성)			-
	결혼여부(미혼)	-		
	학력수준(대학교)			+

p<0.1

V. 결론

우리나라는 지역불균형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등을 개발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2.0 계획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방안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정주환경이 개선되어야만이 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혁신도시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

도를 분석하고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를 토대로 혁신도시 정주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총 16개 특성을 도출하고 설문조사 및 평균값 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만족도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도로 및 주차, 이웃과의 관계, 치안 및 방법, 공원녹지 등 휴식시설을 제외한 10개 특성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빛가람 혁신도시가 개발된지 5년 이상이 경과된 점을 고려할 때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정주환경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리적 특성으로써, 자연환경 및 경관, 주거환경, 광역적 접근성, 대중교통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그리고 시설적 특성으로는 상업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이 정주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가 정주환경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혁신도시 기반시설 등이 완료되었고 물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도시체계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사회적 특성이나 시설적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2.0에서 보다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 는 소음·악취 및 대기오염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 많다는 점이 본 연구에서 도출되었으며, 정주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축사설치 제한 및 시설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의료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종합병원 등의 의료체계를 조속하게 개선하고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단위 이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연구시설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학연의 한 축인 대학의 입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혁신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높다. 따라서

대학의 산학협력 기능이 혁신도시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캠퍼스와 유사한 특례조항 신설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정주환경 만족도에 유의미한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분석한 점과 설문조사가 특정지역만으로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입장에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경제관련장관회의,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활성화 방안**, 2018.

[2]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 소식,”** 2018.9월호, 2018.

[3]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공기관 이전의 지역발전효과 분석 및 극대화 방안**, 2015.

[4] 김정호, **“경북혁신도시의 도시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0권, 제1호, pp.21-35, 2008.

[5] 류형철, 신우화, 신우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0권, 제2호, pp.317-333, 2012.

[6] 김형우, **혁신도시 지역특성 및 이전기관 조직특성이 가족동반이주율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7] 라채훈, **대도시의 정주환경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8] 정창호, **중심도시와의 연계에 따른 지역 생활권 설정 및 정주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9] 임미화,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의식에 관하여-생활환경만족도와 도시위험도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학보, 제62호, pp.106-120, 2015.

[10] 이재송, 석두성, 최정민, 최열, **“산업단지 정주여건에 관한 종사자의 만족도 분석: 부산광역시 기장군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30권, 제1호, pp.215-236, 2018.

[11] 최효승, 안형순, **“IPA기법을 활용한 진원마을 사업 만족도 평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pp.688-697, 2018.

[12] 이학식, 임지훈, **SPSS 12.0 매뉴얼**, 2005.

저자 소개

백 민(Min Baek)

정회원



- 2010년 2월 :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학사)
- 2017년 9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석사과정

<관심분야> : 도시계획, 도시설계, 주거환경

안 형 순(Hyung-Soon An)

정회원



- 1995년 2월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공학석사)
- 2001년 2월 : 홍익대학교 도시계획학과(공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도시계획,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